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11일 웨이보 공개)

사람이 물속에서 죽다 (왕호응 씀)

이것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었던 사례(事例)이다. 그는 술수(術數)를 다루는 사람인데, 그의 제자(徒弟)의 제자의 남편(男便)이 11월 3일 밤 두 시(時)가 넘은 시각(時刻)에 아들과 어머니, 아내에게 위챗으로 메시지를 남겼고, 그런 후(後) 4 일 밤 8시가 넘을 때까지 줄곧 연락(連絡)이 끊긴 상태(狀態)에 처(處)해 있었는데, 증손(曾孫) 제자가 그와 이 일을 이야기했으나 결코 예측(豫測)을 구(求)한 것은 아니었기에, 이에 그가 길흉(吉凶)을 예측하고자 괘(卦)를 흔들어서 얻어서,

계묘년(癸卯年) 임술월(壬戌月) 병인일(丙寅日) 기해시(己亥時) (순공(旬空): 술해(戌亥)),

감위수(坎為水)가 수풍정(水風井)으로 변(變)하는 괘(卦)를 얻었다.

癸卯年 壬戌月 丙寅日 己亥時

八卦

坎為水(坎水宮) 之 水風井(震木宮)

兄戊子 || 青 兄戊子 || 世 伏 兄戊子
馬災 馬災 馬災

世 官戊戌 | 玄 官戊戌 | 伏 官戊戌
蓋 蓋 蓋

父戊申 || 白 父戊申 || 伏 父戊申
馬 馬 馬

父辛酉 | 蛇 財戊午 || 應 伏 財戊午
鬼乙害 閏將 閏將

應 兄辛亥 | 勾 官戊辰 | 伏 官戊辰
喜乙花劫 馬月 馬月

官辛丑 || 朱 孫戊寅 || 伏 孫戊寅
天 帳地 帳地

六沖卦

卦身: 兄亥

世身: 初亥

空亡: 戌亥

제자는 자손효(子孫爻)가 되고, 제자의 제자의 남편은 모두 자손의 범주(範疇)에 귀속(歸屬)되므로, 자손을 용신(用神)으로 삼는다. 자손 인목(寅木)은 월(月)이 극(剋)하지 않고 일(日)에 임하여 왕상(旺相)하니 마치고 길(吉)한 것 같으나, 사지(死地) 오화(午火)가 독발(獨發)하였고, 신금(申金)이 암동(暗動)하여 자손을 극하니, 일이 용신을 방부(幫扶)하는 역량(力量)이 약해져 크게 흉한 상(象)이므로 사람이 이미 사망(死亡)했다고 단정(斷定)했다.

이미 파출소(派出所)에 가서 사건(事件)을 신고(申告)했는데, 당일(當日) 밤의 폐쇄회로 화면(畫面)에 사람이 어느 다리 주

변(周邊)으로 걸어갔고 옆에는 강(江)이 흐르고 있었으며 (상해(上海)에 있음), 그 후로는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傳)해왔다.

이것은 감궁괘(坎宮卦)가 되니, 감(坎)은 물이 된다. 사지가 유금(酉金)으로 화(化)하였으니, 변효(變爻)가 보충(補充) 설명(說明)해 주는데, 유금 반괘(反卦)는 태괘(兌卦)가 되고 태는 높이나 못이 되어, 틀림없이 강에 뛰어들어 자살(自殺)한 것이다.

뒤에 무천일(戊辰日) 오후(午後) 유시(酉時)에, 경찰관(警察官)이 전화(電話)를 걸어와 실종(失蹤)된 하천(河川)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시체(屍體)를 건져 올렸다고 말했다.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11일 웨이보 공개)

人死在水中 (王虎应写)

这是某人问过我的一个案例。他是搞法术的，其徒弟的徒弟的老公于11月3日晚上两点多给儿子、老妈、老婆微信留言，然后到4日晚上8点多，一直处于失联状态，徒孙和他说了此事，但并非是求测，于是他摇卦测吉凶，于癸卯年壬戌月丙寅日己亥时 (旬空：戌亥)，得坎为水之水风井。

青龙 兄弟子水"世
 玄武 官鬼戌土'
 白虎 父母申金"
 螣蛇 妻财午火×应 父母酉金
 勾陈 官鬼辰土'
 朱雀 子孙寅木"

徒弟为子孙爻，徒弟的徒弟的老公都归属于子孙，故以子孙为用神。子孙寅木月不克，临日为旺相，好像为吉，但死地午火独发，申金暗动克子孙，日帮扶用神的力量弱了，大凶之象，故断人已经死亡。

已经到派出所报案，说当天晚上监控显示人走到一座桥边，旁边是一条河（在上海），就再也看不到人到哪里去了。

此为坎宫卦，坎为水。死地化酉金，变爻补充说明，酉金返卦为兑，兑为沼泽、水池，一定的跳河自杀了。

后于戊辰日下午酉时，民警打电话说失踪的河流不远处打捞到的尸体。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1일 웨이보 공개)

소강절(邵康節) 전기(傳奇)

제1장 범양(范陽)에 기린(麒麟)이 내리니, 어린아이의 타고난 자질(資質)이 비범(非凡)하여 결코 평범(平凡)한 아이가 아니로다

북송(北宋) 대중상부(大中祥符) 4년(年), 해로는 신해년(辛亥年) 선달 스무닷셋날, 북방(北方)의 한겨울에 북풍(北風)이 거위 털 같은 큰 눈을 휘몰아치며 하늘과 땅을 온통 범양 대지에 뒤덮고 있었다. 예로부터 연(燕)나라와 조(趙)나라의 강인(強靱)한 풍모(風貌)가 살아 숨쉬는 이 뜨거운 땅은 천리(千里)가 얼어붙고 만물(萬物)이 고요했으니, 평범(平凡)한 마을들은 모두 문(門)을 닫고 추위를 피했으나, 오직 탁주(涿州) 대소촌(大邵村)에 있는 소씨(邵氏)의 고택(古宅)만은 등불이 일렁이며 따스한 기운(氣運)과 훈훈(薰薰)함이 감돌더니, 한 차례 맑고 우렁찬 아기의 울음 소리가 겨울날의 적막(寂寞)을 깨뜨렸다. 당대(當代) 최고(最高)의 거유(巨儒)이자 역학(易學)의 종사(宗師)이며 후세(後世)에 강절선생(康節先生)으로 존송(尊崇)받는 소옹(邵雍)은 자(字)가 요부(堯夫)이니, 바로 이 상서(祥瑞)로운 눈이 분분(紛紛)히 날리는 시기(時期)에 조용히 세상(世上)에 태어났다.

소씨의 조상(祖上)은 범양의 이름 높은 명문가(名門家)에서 기원(起源)하였으니 바로 소공(召公)의 후예(後裔)로, 대대(代代)로 글을 읽는 집안이라 문맥(文脈)이 수백 년(數百年)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 그의 아버지 소고(邵古)는 자가 천수(天叟)로, 성품(性品)이 담박(淡泊)하고 학문(學問)이 넓으며 행실(行實)이 돈독(敦篤)하여 경서(經書)와 역사(歷史), 음운(音韻)과 훈고(訓詁)의 학문에 정통(精通)했으니, 일생(一生) 동안 공명(功名)을 구(求)하지 않고 고향(故鄉)에 은거(隱居)하며 농사(農事) 짓고 글을 읽는 것으로써 가업(家業)을 전하여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세상에 숨은 군자(君子)였다. 어머니 이씨(李氏)는 온화(溫和)하고 어질며 현숙(賢淑)하였고, 선(善)한 생각을 돈독히 믿어 심성(心性)이 맑고 깨끗했으며, 남을 대(對)할 때도 늘 너그럽고 어질며 착하여 부부(夫婦) 두 사람이 전원(田園)을 지키며 청빈(淸貧)하게 나날을 보냈으나 시(詩)와 책(冊)이 끊이지 않아 가풍(家風)이 청정(淸正)했다. 이보다 전(前)에 소가는 몇 차례나 이주(移住)를 거치며 대대로 연조(燕趙) 대지에 뿌리를 내렸으니, 두터운 국가(國家)의 기틀과 문인(文人)의 기상(氣相)을 쌓아 올렸고, 이는 또한 소옹의 탄생(誕生)에 평범하지 않은 복선(伏線)을 묻어두었던 셈이다.

옛날에 성현(聖賢)이 탄생할 때는 대부분(大部分) 세상에 전해지는 기이(奇異)한 현상(現象)이 있었으니, 소옹 또한 이와 같았다. 시골 사람들의 기록(記錄)과 후세(後世)의 책들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소옹이 출생(出生)하던 당일(當日) 밤에 눈바람이 갑자기 멈추고 밤하늘이 맑고 깨끗했으며 별과 달이 희고 밝았는데, 뜰 한가운데에 문득 은은(隱隱)한 향기(香氣)가 피어 올라 오랜 시간(時間)이 지나도 흩어지지 않았다. 더욱 기이한 것은 평범한 아기들은 태어날 때 모두 눈을 감고 있는데, 오직 소옹만은 땅에 떨어진 후 울음소리가 맑고 절도(節度)가 있었으며 잠시(暫時) 후에 곧 눈을 떠서 사방(四方)을 바라보았으니, 두 눈이 맑고 투명(透明)하게 빛나며 신비(神秘)로운 빛이 안으로 수렴(收斂)되어 있어 평범한 아이들의 명칭하고 혼돈(混沌)스러운 모습과 같지 않았다. 소고 부부(夫婦)는 이러한 정경(情景)을 보고 마음속으로 놀랍고 기이하게 여겼으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비범(非凡)하여 훗날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임을 깊이 알고는 이에 마음을 다해 보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1일 웨이보 공개)

살피며 두터운 기대를 걸었다.

어린 시절의 소옹은 곧 평범한 아이들의 거칠고 장난스러운 천성(天性)에서 완전(完全)히 벗어나, 판이(判異)하게 다른 타고난 자질(資質)을 나타냈다. 다른 집의 어린 아이들은 종일(終日) 장난치며 쫓아다니고 놀기를 탐(貪)하며 잠자기를 좋아했으나, 오직 소옹만은 가라앉아 고요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노는 것을 즐기지 않고 항상(恒常) 홀로 뜰에 앉아 해와 달이 흘러가고 바람과 구름이 변화(變化)하는 것을 바라보았으니 한번 보면 곧 한나절을 넘겼고, 얼굴 표정이 엄숙(嚴肅)하여 마치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하여 어린아이의 치기(稚氣)가 전혀 없었다. 서너 살 때 그는 한번 보면 잊지 않는 천재적(天才的)인 재능(才能)이 있었으니, 아버지 소고가 평소(平素)에 시서를 암송(暗誦)하고 경서(經書)의 의리(義理)를 해설(解說)할 때 그가 한편에 서서 조용히 귀 기울여 듣고 남몰래 마음속으로 기억(記憶)하여 암송했으니, 엄격(嚴格)하게 가르치지 않아도 대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외워 읊어 낼 수 있었다.

소고는 말로 가르치고 몸으로 본을 보이는 도리를 깊이 알고 있었기에 어린 아들에게 억지로 외우도록 강요(強要)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를 데리고 천지만물(天地萬物)을 관찰(觀察)하며 사시(四時)가 바뀌어 변하는 것을 살피고 고금(古今)의 사실(事實)과 이치(理致)를 이야기하며 성현(聖賢)의 기상을 전해주었다. 봄날에는 풀과 나무가 싹트는 것을 보고, 여름날에는 뇌우(雷雨)가 일어나고 지는 것을 살피며, 가을날에는 잎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겨울날에는 추위에 움츠러 고요히 기르는 이치를 깨닫게 하였으니, 자연(自然)의 온갖 현상(現象) 속에서 소옹을 위(爲)해 지혜(智慧)를 열어주었다. 소옹은 학문을 깨우치는 자질(資質)이 지극(至極)히 깊어 한 가지를 들으면 세 가지를 미루어 알았으니, 어린 나이에 벌써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알았고 마음속에는 점차(漸次) 천지 대도(大道)와 세상의 규칙(規律)에 대한 호기심(好奇心)과 탐구(探求)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으니, 이것이 그가 훗날 역학을 깊이 연구(研究)하고 천지의 수리(數理)를 미루어 짚어 내는 최초(最初)의 씨앗이 되었다.

일곱 살 되던 해, 소옹은 기이(奇異)한 일 하나를 겪게 되니, 이로써 타고난 비범(非凡)함이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어느 날 한낮에 그는 홀로 마당에서 놀다가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문득 흘러가는 구름이 변하고 흩어지며 형상(形象)이 없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말을 내뱉기를 “하늘은 어찌 이리도 높고 땅은 어찌 이리도 두터운가, 천지 사이에 만물은 순서(順序)를 따라 생겨나는구나”라 하였다. 몇 마디 되지 않는 말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니, 길을 지나다 이를 들은 소고는 가슴속에 큰 충격(衝擊)을 받았다. 이로부터 소고는 더욱 마음을 기울여 가르쳤으니, 사서오경(四書五經)에서 제자백가(諸子百家)에 이르기까지, 천문(天文)과 지리(地理)에서 인사(人事)의 흥망성쇠(興亡盛衰)에 이르기까지 순서를 따라 점진적(漸進的)으로 나아가 소옹을 위해 견고(堅固)한 학식(學識)의 근간(根幹)을 세워 주었다.

그 당시(當時)의 북송은 진종(真宗)이 재위(在位)하여 천하가 비로소 안정(安定)되었고 문풍(文風)이 크게 일어났으며, 조정(朝廷)과 민간(民間)에서 모두 유학(儒學)을 숭상(崇尚)하여 민간(民間)에 농사지으며 글을 읽는 풍조(風潮)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태평성세(太平盛世)의 아래에도 도리어 남몰래 근심이 있었으니 관료(官僚) 사회(社會)에는 점차 사치(奢侈)스러운 풍조가 생겨났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명예(名譽)를 쫓고 이익(利益)을 탐하였으며, 마음을 쏟아 천지 대도와 성명(性命)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사람은 적었다. 나이가 어린 소옹은 비록 시골에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1일 웨이보 공개)

처(處)해 있었으나 마음의 바탕은 고결(高潔)하고 뜻이 원대(遠大)하였으니, 어려서부터 강직(剛直)하고 의로운 기개(氣概)를 품었으며, 스스로 그 재능(才能)을 호방(豪放)하게 여겨 세속의 물결을 따라 흐르지 않았다. 그는 항상(恒常) 아버지를 따라 역사서를 읽으며 역대(歷代) 왕조(王朝)의 흥망성쇠와 세상일이 부침(浮沈)하며 변화하는 것을 보았고 가슴속에는 곧 벅찬 감정(感情)이 솟구쳤으니, 천지의 규칙(規則)을 명백(明白)히 밝히고 인간 세상의 변천(變遷)을 통찰(洞察)하고자 뜻을 세웠으며, 부귀영화(富貴榮華)를 구하지 않고 오직 대도를 깨달아 세상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할 뿐이었다.

몇 년(年)의 세월(歲月)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고, 나이 어린 소용은 책 향기(香氣)에 젖어 들고 자연의 기운을 받으며 조용히 성장(成長)했다. 그의 몸가짐은 맑고 수려(秀麗)했으며 기품(氣稟)은 침착(沈着)하고 온중(穩重)하여, 나누는 대화(對話)는 또래의 아이들을 훨씬 초월(超越)하였으니 일거수 일투족 사이에 자연스럽게 선비의 기상이 있었다. 이웃과 고을 사람들은 모두 소씨 집안에 신동(神童)이 태어나 총명(聰明)하고 지혜(智慧)로움이 남다르고 마음의 바탕이 순수(純粹)하니 훗날 틀림없이 전도(前途)가 유망(有望)할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아무도 이 범양의 어린아이의 가슴속에 이미 한편의 광활(廣闊)한 천지가 감추어져 있음을 알지 못했으니, 그는 시골에 갇혀 평범(平凡)하게 일생(一生)을 마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이미 남몰래 기약(期約)하기를 강산(江山)을 두루 돌아다니고 이름난 스승을 널리 찾아 세상의 지극한 이치를 탐구하여 천지만물의 최종적(最終)인 신비(神秘)를 풀고자 했다.

한겨울에 태어난 상서(祥瑞)로운 기운은 그의 순수한 심성을 길러주었고, 연조 대지의 기상은 그의 견고(堅固)하고 단단한 품격(品格)을 형성(形成)해냈으며, 대대(代代)로 글 읽는 집안의 좋은 영향(影響)은 그의 깊은 학식(學識)의 바탕을 가라앉혀 쌓아 올렸다. 소용의 전설적(傳說的)인 일생은 바로 이 눈바람이 하늘 가득 찬 범양의 옛 땅에서 출발(出發)하였으니, 이로부터 한 알의 역학 거성(巨星)이 서서히 떠올라 마침내 북송의 문단(文壇)과 수천 년의 이학(理學)을 비출 것이며, 만세(萬世)에 흘러 전해져 썩지 않을 것이다.

第一章 范阳降麟，稚子异质不凡胎

北宋大中祥符四年，岁在辛亥，腊月二十五日，北方隆冬，朔风卷着鹅毛大雪，漫天漫地覆裹着范阳大地。这片自古燕赵风骨的热土，千里冰封，万籁俱寂，寻常村落皆闭门避寒，唯有涿州大邵村的邵家老宅，灯火摇曳，暖意融融，一声清亮的婴啼，划破了冬日的沉寂。一代旷世大儒、易学宗师邵雍，字尧夫，后世尊为康节先生，便在这瑞雪纷飞的时节，悄然降生。

邵氏祖上源自范阳望族，乃是召公后裔，世代书香，文脉绵延数百年。其父邵古，字天叟，性情淡泊，博学笃行，精通经史、音韵、训诂之学，一生不求功名，隐居乡里，以耕读传家，是远近闻名的隐世君子。母亲李氏，温婉贤淑，笃信善念，心性澄澈，待人宽厚仁善，夫妻二人相守田园，清贫度日，却诗书不绝，家风清正。在此之前，邵家几经迁徙，世代扎根燕赵，积淀了深厚的家国底蕴与文人风骨，也为邵雍的降生埋下了不凡的伏笔。

古时圣贤降生，多有异象传世，邵雍亦是如此。据乡野记载与后世典籍佐证，邵雍出生当夜，风雪骤停，夜空澄澈，星月皎洁，庭院之中忽有暗香浮动，经久不散。更奇的是，寻常婴儿降生皆闭目啼哭，唯独邵雍落地之后，哭声清亮有度，片刻便睁眼张望，双目澄澈透亮，有神光内敛，不似寻常孩童懵懂混沌。邵古夫妇见此情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1일 웨이보 공개)

景，心中惊异，深知此子生来不凡，日后必成大器，遂悉心呵护，寄予厚望。

幼年的邵雍，便彻底跳出了寻常孩童的顽劣天性，展现出截然不同的禀赋。别家稚子终日嬉闹追逐、贪玩嗜睡，唯独邵雍沉静寡言，不恋嬉戏，常常独坐庭院，观日月流转、风云变幻，一看便是大半日，神色肃穆，若有所思，全然没有孩童的稚气。三四岁时，他便能过目不忘，父亲邵古平日诵读诗书、讲解经义，他立于一旁静静聆听，默默记诵，无需刻意教导，便能复述大半内容。

邵古深知言传身教之道，从不逼迫幼子死记硬背，而是带着他观天地万物，察四时更迭，讲古今事理，传圣贤风骨。春日观草木生发，夏日察雷雨起落，秋日看叶落归根，冬日悟寒藏静养，在自然万象之中，为邵雍启蒙心智。邵雍悟性极高，举一反三，小小年纪便懂得格物致知，心中渐渐生出对天地大道、世间规律的好奇与求索之心，这也为他日后深耕易学、推演天地数理埋下了最初的种子。

七岁那年，邵雍遭遇了一件奇遇，更显其天赋异禀。一日午后，他独自在院中玩耍，仰头观天，忽见流云变幻，聚散无形，忽然脱口而出：“天何其高，地何其厚，天地之间，万物循序而生。”寥寥数语，语出稚子，惊得路过的邵古心头一震。此后邵古愈发用心教导，从四书五经到诸子百家，从天文地理到人事兴衰，循序渐进，为邵雍搭建起扎实的学识根基。

彼时的北宋，真宗在位，天下初定，文风鼎盛，朝野崇尚儒学，民间耕读成风。但盛世之下，亦有隐忧，官场渐生奢靡之风，世人多追名逐利，少有人潜心探寻天地大道、性命之理。年少的邵雍，虽身处乡野，却心性高远，自幼便慷慨有志，自雄其才，不愿随波逐流。他常随父亲阅览史书，见历代兴衰更迭、世事浮沉变幻，心中便生出感慨，立志要探明天地规律、洞悉人世变迁，不求荣华富贵，只求悟透大道、裨益世人。

数年光阴转瞬即逝，年少的邵雍在书香浸润与自然滋养中悄然成长。他身姿清朗，气度沉稳，谈吐远超同龄人，举手投足间自有儒雅风骨。邻里乡党皆知邵家出了一位神童，聪慧过人、心性纯粹，日后定然前途无量。但无人知晓，这位范阳稚子的心中，早已藏着一片浩瀚天地，他不甘于困守乡野、碌碌一生，早已暗暗期许，遍历山河、遍访名师，探寻世间至理，解开天地万物的终极奥秘。

隆冬降生的瑞气，滋养了他纯粹的心性；燕赵大地的风骨，铸就了他坚韧的品格；书香世家的熏陶，沉淀了他深厚的底蕴。邵雍的传奇一生，便从这片风雪漫天的范阳故土启程，自此，一颗易学巨星，缓缓升起，终将照亮北宋文坛、理学千载，流传万世不朽。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1일 웨이보 공개)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융(인스타: sangjun2495) (융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태원(太原) 인물(人物) 전기(傳奇)

태태(臺駘) 전(傳)

태태는 소호금천씨(少昊金天氏)의 후손(後孫)이자 현명(玄冥)의 후예(後裔)로, 상고(上古) 시대(時代) 병주(并州)에서 물을 다스린 현명(賢明)한 신하(臣下)이다. 《좌전(左傳)·소공(昭公) 원년(元年)》의 기록(記錄)에 명확(明確)히 이르기를, “태태가 분수(汾水)와 도수(洮水)를 흐르게 하고 큰 못을 뚫으로 막아 태원(太原)에 살 수 있게 했다”라고 하였다. 태원의 땅은 태행산(太行山)을 등지고 분수에 임(臨)하고 있는데, 상고의 대홍수(大洪水) 시기(時期)에는 수토(水土)가 아직 평정(平定)되지 않아 분수와 도수의 두 물줄기가 사방(四方)으로 세차게 넘쳐흘렀고, 산골짜기가 막혀 물이 고여 못을 이루니 온 땅이 진흙탕과 늪지대였다. 그 시절(時節)에는 풀과 나무가 거칠게 우거지고 진흙 늪지가 천 리(千里)에 달하여 백성(百姓)들의 가옥(家屋)이 드물었으니, 백성들은 의지(依支)할 곳 없이 떠돌며 농사(農事) 지을 땅도 사냥할 곳도 없었고, 병주의 광활(廣闊)한 비옥(肥沃)한 토지(土地)는 온통 수해(水害)에 가로막혀 있었다. 전욱(顓頊) 임금(王)이 천하(天下)를 다스릴 때, 구주(九州)의 수해가 아직 평정되지 않아 백성들의 삶이 황폐(荒廢)해지자, 이에 태태에게 현명의 치수(治水) 직책(職責)을 이어받도록 명(命)하여 분천(汾川)의 수해를 전담(專擔)해 다스리고, 한 지방(地方)의 백성들을 안정(安定)시키게 했다.

예로부터 물을 다스리는 자들은 대부분(大部分) 물길을 뚫으로 막아 차단(遮斷)하는 방법(方法)을 썼으나, 이는 임시방편(臨時方便)일 뿐 근본(根本)을 견고(堅固)히 하기는 어려웠다. 태태는 수토의 이치(理致)를 깊이 깨달아 산천(山川)의 형세(形勢)를 알고 물의 흐름과 규칙(規則)을 명백(明白)히 밝히고 있었기에, 무조건(無條件) 막아만 두던 둔(鈍)한 계책(計策)을 버리고 오직 물길을 터서 이끄는 훌륭한 법을 고수(固守)했다. 그는 분수와 도수 유역(流域)을 두루 돌아다니며 진흙과 모래로 막힌 하도(河道)를 뚫고 물길을 나누어 홍수(洪水)를 배출(排出)했으며, 제방(堤防)을 쌓고 못을 만들어 고인 물을 거두어들이니, 넘쳐흐르던 물줄기가 제각기 제 맥락(脈絡)을 찾아 돌아갔고 범람(汎濫)하던 못의 파도(波濤)도 잦아들었다. 몇 년(年)의 세월(歲月)을 산야(山野)로 분주(奔走)히 뛰어다니며 친(親)히 백성들을 이끌고 개간(開墾)과 준설(浚濼)에 힘썼으며 낮과 밤으로 근면(勤勉)하니, 마침내 분수가 편안(便安)히 흐르고 늪지대가 메말라 과거(過去)의 진흙탕과 황량(荒涼)한 언덕들이 모두 기름진 문전옥답(門前沃沓)이 되었다. 수해가 마침내 제거(除去)되자 땅의 기운(氣運)이 비로소 조화(調和)로워졌고, 만백성(萬百姓)은 비로소 집을 지어 모여 살며 논밭을 일구고 오곡(五穀)을 파종(播種)할 수 있게 되었으니, 병주는 이때부터 비로소 사람이 살 수 있는 고을의 면모(面貌)를 갖추게 되었다.

전욱(顓頊) 임금은 그의 위대(偉大)한 치수(治水) 공로(功勞)를 기리며 태태를 분수의 신(神)으로 책봉(冊封)하여, 분천에서 제사(祭祀)를 받들고 대대(代代)로 진토(晉土)를 지키게 했다. 후세(後世) 사람들은 그의 은덕(恩德)을 감격(感激)해하고 기리며 진사(晉祠)에 태태사(臺駘祠)를 세우고 사시사철 제물(祭物)을 바쳐 공양(供養)하니, 향(香)불이 수천 년(數千年)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화하(華夏)의 치수(治水) 역사(歷史)를 통틀어 살펴보면, 대우(大禹)가 아홉 강줄기를 터서 구주(九州)를 평정(平定)하여 이름을 만고(萬古)에 남겼으나, 태태가 분수와 도수를 다스려 태원의 기틀을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11일 웨이보 공개)

다진 것은 대우보다 훨씬 앞선 일이었다. 삼진(三晉) 문맥(文脈)의 시작(始作)과 병주 토지(土地)의 형성(形成)은 모두 태태의 힘에 기대어 이루어진 셈이다. 그의 공적(功績)은 단지 한 시절의 수해를 평정한 데 그치지 않고, 진나라 땅을 개척(開拓)하여 만백성을 기르고 태원의 천 년 문명(文明)의 근간(根幹)을 열어젖힌 데 있다. 그가 어진 정치(政治)로 세상을 구(救)하고 형세에 맞추어 다스린 지혜(智慧)와, 근면(勤勉)하고 성실(誠實)하게 공무(公務)에 봉사(奉仕)하여 한 지방(地方)에 은택(恩澤)을 입힌 덕(德)은 분수의 산하(山河) 사이에 영원(永遠)히 남아 백 대(百代)를 지나도 썩지 않을 것이니, 참으로 태원 상고 시대 제일(第一)의 선현(先賢)이다.

台骀传

台骀者，少昊金天氏之裔，玄冥之后，上古并州治水之贤臣也。《左传·昭公元年》明确记载：“台骀宣汾、洮，障大泽，以处太原。”太原之地，倚太行、临汾水，上古洪荒之时，水土未平，汾、洮二水奔涌四溢，山谷壅塞，积水成泽，遍地潦淖。其时草木芜杂，泥沼千里，民居稀少，百姓漂泊无依，耕猎无地，并州广袤沃土尽被水患所困。颛顼帝君临天下，以九州水患未平，民生凋敝，遂命台骀承袭玄冥治水之职，专治汾川水患，安定一方生民。自古治水者，多以堵截为法，治标而难固本。台骀深谙水土之道，知山川走势、明水势规律，摒弃顽堵之拙策，独持疏导之良法。遍历汾洮流域，凿通淤塞河道，分流泄洪，围筑堤泽，收纳积水，使漫溢之水归其脉络，泛滥之泽敛其波澜



。经年奔走山野，亲率黎民垦淤疏河，昼夜不倦，终使汾水安流，沼泽干涸，昔日泥潦荒丘，尽成膏腴良田。水患既除，地气始和，万民得以筑室聚居，开垦田亩，播种五谷，并州自此初具人居之貌。

颛顼帝嘉其治水大功，册封台骀为汾水之神，食祀汾川，世守晋土。后人感念其恩德，于晋祠立台骀祠，四时供奉，香火绵延千载。纵观华夏治水史册，大禹疏九河而定九州，名垂万古，而台骀治理汾洮、奠基太原，远在大禹之前。三晋文脉之始，并州沃土之成，皆赖台骀之力。其功不在于一朝平定水患，而在于开辟晋地、滋养万民，启太原千年文明之根基。其仁政济世、因势施治之智，勤恳奉公、泽被一方之德，长存汾水山河之间，历百世而不朽，为太原上古第一先贤。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웅(인스타: sangjun2495) (웅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도서 소개(2026년6월11일 웨이보 공개)

《추명서(推命書)》16

일본어판(日本語版) 《추명서(推命書)》는 앵전호문(櫻田虎門, 사쿠라다 코몬)의 저작(著作)이다. 이 사람은 센다이번(仙台藩)의 유학자(儒學者)로 호(號)는 고부자(鼓缶子)이며, 역학(易學)과 오행학(五行學)을 겸하여 연구했다. 앵전호문의 《추명서》는 일본 문정(文政) 연간(年間, 약 1818년)에 간행(刊行)된 최초로 체계적(體系的)으로 중국(中國)의 사주추명(四柱推命)을 번역하여 소개한 전문서이다. 서승(徐升)의 《연해자평(淵海子平)》을 저본(底本)으로 삼아, 일본식 선장본(線裝本) 상·중·하 삼권본(三卷本) 형태로 채택(採擇)하였으니, 일본 사주추명의 초석을 다진 문헌(文獻)이다. 동시에 저자(著者)가 명리(命理)를 전문적으로 정통한 것이 아니었기에, 번역의 정밀도와 체계의 부합 면에서 역사적(歷史的) 한계가 존재한다.

학술맥락: 강호(江戶) 중기(中期)에 중국의 사주추명이 일본으로 전해졌고, 앵전호문은 자신(自身)의 유학과 역학 및 오행학적 축적을 결합(結合)하여 최초로 체계적인 번역 소개를 완성(完成)하였다. 아울러 최초로 “단역(斷易)”을 “오행역(五行易)”이라 명명(命名)함으로써, 후속(後續) 일본 추명학 발전(發展)의 전문 용어(用語) 기초를 확립하였다.

역사의의: 일본 추명학의 시조(始祖) 작품으로 사주(四柱: 년, 월, 일, 시), 간지(干支), 오행 등 핵심틀을 명확(明確)히 하였으며, 명리 술수(術數)가 민간으로부터 학술적 시야(視野)로 들어오도록 추동(推動)하였다. 명치(明治) 이후 송본의량(松本義亮) 등의 학자들이 이 기초 위에서 “사주추명”이라는 명칭을 확립하였다. 연재(連載) 중 열 여섯 번째.

日文版《推命書》是櫻田虎門(さくらだこもん)的著作。此人为仙台藩儒学者，号鼓缶子，兼治易学与五行学。櫻田虎門的《推命書》是日本文政年間(約1818

年)刊行的首部系統譯介中國四柱推命的專著，以徐升《淵海子平》為底本，採用和刻線裝上中下三卷本形制，是日本四柱推命的奠基文獻，同時因作者非專精命理，存在翻譯精度與體系适配的歷史局限。

學術脈絡：江戶中期中國四柱推命傳入日本，櫻田虎門結合自身儒易與五行學積累，完成首部系統譯介，首次將“斷易”命名為“五行易”，為後續日本推命學發展奠定術語基礎。

歷史意義：是日本推命學的开山之作，明确了四柱(年、月、日、时)、干支、五行等核心框架，推动命理术数从民间传入学术视野，明治后松本义亮等学者在此基础上确立“四柱推命”名称。連載之十六。

왕호응(王虎應) 제자 사례(2026년6월11일 웨이보 공개)

성격(性格)이 내향적(內向的)인 딸

축월(丑月) 병오일(丙午日) (순공(旬空) : 인묘(寅卯)),
남성(男性)이 딸이 언제 결혼(結婚)할지 점(占)쳤다.
수뢰둔(水雷屯) 괘(卦)를 얻었다.

壬寅年 癸丑月 丙午日

八卦

水雷屯(坎水宮) 之 水雷屯(坎水宮)

兄 戊子 <small>閏害鬼馬災</small>	青 兄 戊子	伏 兄 戊子 <small>閏害鬼馬災</small>
應 官 戊戌 <small>花鞍蓋</small>	玄 官 戊戌	應 伏 官 戊戌 <small>花鞍蓋</small>
父 戊申 <small>帳亡喜馬</small>	白 父 戊申	伏 父 戊申 <small>帳亡喜馬</small>
官 庚辰 <small>天德馬月</small>	蛇 官 庚辰	伏 財 戊午 <small>花將</small>
世 孫 庚寅 <small>花劫德地</small>	勾 孫 庚寅	世 伏 官 戊辰 <small>天馬月</small>
兄 庚子 <small>閏害德鬼馬</small>	朱 兄 庚子	伏 孫 戊寅 <small>花劫地</small>

空亡: 寅卯

卦身: 官未
世身: 三爻

[판단(判斷)] 관귀(官鬼)를 용신(用神)으로 삼는다. 괘 중에 관귀가 양현(兩玄)하는데, 월(月)의 방부(幫扶)를 얻고 일(日)이 또 와서 생(生)하니 왕상(旺相)하여, 결혼할 기회(機會)가 매우 많음을 설명(說明)한다. 하지만 자손(子孫) 인목(寅木)이 이효(二爻)에서 구진(勾陳)에 임(臨)하고 공망(空亡)인데, 자손은 그의 딸을 대표(代表)하고 이효는 집이 되어 집안을 나타내며, 구진은 움직이지 않는 상(象)이고, 수뢰둔 괘는 진을 치고 정착(定着)한다는 뜻이 있으니, 이는 그의 딸이 집안에 머물며 밖으로 외출(外出)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정보(情報)이자, 평생(平生) 집에서 살며 시집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을 뜻한다.

자손이 지세(持世)하니 딸의 혼인(婚姻)을 매우 염려(念慮)하며 딸을 위해 마음을 많이 쓰고 있음을 표시(表示)한다. 자손이 지세하고 공망이니, 그는 딸을 평생 곁에 두고 싶어 하지는 않음을 표시한다.

[피드백(反饋)] 그의 딸은 성격이 내향적이라 퇴근(退勤)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문(門)을 닫고 책만 읽으며, 거리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고 소통(疏通)하는 친구(親舊)도 별로 없었다. 비록 많은 사람이 그녀에게 혼처(婚處)를 소개(紹介)해 주었으나, 딸이 한 번도 맞선을 보러 가지 않아 딸의 혼인이 그의 깊은 근심거리가 되었다.

태원(太原)·부력성(富力城)·계서곡(啓棲谷)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11일 웨이보 공개)

性格内向的女儿

丑月丙午日 (旬空：寅卯)，男测女儿什么时候结婚？得水雷屯。

青龙	兄弟子水”
玄武	官鬼戌土’应
白虎	父母申金”
螣蛇	妻财午火 官鬼辰土”
勾陈	子孙寅木”世
朱雀	兄弟子水’

[判断] 以官鬼为用神。卦中官鬼两现，得月帮扶日又来生为旺相，说明结婚的机会很多。但是子孙寅木在二爻临勾陈空亡，子孙代表他的女儿，二爻为宅，代表家里，勾陈为不动之象，水雷屯卦，有安营扎寨的意思，是他女儿呆在家里不喜欢外出的信息，想一辈子住在家里不嫁人。

子孙持世，表示很关心女儿的婚姻，为了女儿操心不少。子孙持世空亡，表示他不想把女儿一辈子留在身边。

[反馈] 他女儿性格内向，下班后就马上回家闭门读书，很少上街，也没有什么朋友沟通。虽然有不少人给她介绍对象，但女儿从来不去相亲，所以女儿的婚姻成了他的心病。
太原·富力城·启栖谷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풍수 사례(2026년6월11일 웨이보 공개)

대계(臺階): 한 뼘 공간(空間)의 사이에 감추어진 동방(東方) 건축(建築)의 지혜(智慧)

대계는 읽는 음이 타이지에(táijiē)이며, 중식(中式) 구조(構造)에서 극(極)히 깊은 내력(底蘊)을 지닌 격조(格調)로, 일찍이 한대(漢代)의 문헌(文獻)에 이미 문자(文字)의 기록(記錄)이 있으며, “대(臺)”와 “계(階)” 두 글자가 각각(各各) 그 뜻을 받들고 서로 도우며 완성(完成)된다.

《설문해자(說文解字)》의 뜻풀이에 의거(依據)하면, “대(臺)는 사방(四方)을 관찰(觀察)하는 높은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본래(本來)의 뜻은 인공(人工)으로 축조(築造)하여 지면(地面)보다 높이 솟은 평평(平平)한 기단(臺基)이며, 발을 붙이고 멀리 바라보며 편안(平安)히 머무르는 평평(平平)한 자리이다. 그리고 “계는 섬돌이다”라고 하였으니, 특별(特別)히 당(堂)에 오르고 실(室)에 들어가는 차례(次例)대로의 통로(通路)를 가리키며, 반드시 층층(層層)이 나아가고 계단(階段)을 밟아 올라가야 하므로 완만(緩慢)한 경사면(傾斜面)과는 구별(區別)되며, 지면과 높은 대(臺)를 연결(連結)하는 점진적(漸進的)인 매개체(媒介體)이다.

고인(古人)들은 양(陽)은 홀수이고 음(陰)은 짝수라는 전통적(傳統的) 이념(理念)을 고수(固守)하여, 단수(單數)를 양으로 여기고 청량(淸朗)한 생기(生機)를 상징(象徵)한다고 보았기에, 전통(傳統) 건축의 대계 계단의 수(數)는 대부분(大部分) 일(一)·삼(三)·오(五)·칠(七)·구(九) 등의 홀수를 취(取)했다. 많은 사람이 지면에서 곧바로 한 곳의 평평한 대면(臺面)에 통(通)하는 것을 과연(果然) 일단(一級)의 대계로 셈해야 하는지 의혹(疑惑)을 품는다.

고건축(古建築)의 규제(規制)와 전통 건축 준칙(準則)에 의거하면, 옛날부터 곧 “계단을 세고 대는 세지 않는다”라는 설(說)이 있었다. 맨 위층의 평평한 대면은 발을 디디는 기단의 종점(終點)이며, 차례대로 기어오르는 계단이 아니므로 대계의 계단의 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種類)에는 지면보다 높은 하나의 대(臺)가 있으니 대계라고 부르지 않겠는가?

台阶：藏在方寸之间的东方营造智慧

台阶，读音为táijiē，是中式建筑中极具底蕴的构造，早在汉代文献中便有文字记载，由“台”与“阶”二字各承其意、相辅相成。

据《说文解字》释义，“臺，观四方而高者”，本义是人工筑造、高出地面的平整台基，是立足眺望、安稳驻足的平整空间。而“階，陞也”，特指登堂入室的逐级通道，必须层层递进、拾级而上，区别于平缓坡面，是衔接地面与高台的递进载体。

古人秉持阳奇阴偶的传统理念，认为单数为阳，象征清朗生机，因此传统建筑台阶级数多取一、三、五、七、九等奇数。很多人会疑惑，地面直通一处平整台面，是否算作一级台阶？

依据古建規制与传统营造准则，自古便有“数阶不数台”的说法。顶层平整台面是落脚的台基终点，并非逐级攀升的阶梯，不计入台阶级数。但是这种就有一个高于地面的台子不叫台阶吗？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풍수 사례(2026년6월11일 웨이보 공개)

이것은 대계(臺階)인가 아닌가? (这是不是台阶?)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융(인스타: sangjun2495) (융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감상(2026년6월11일 웨이보 공개)



하늘 속의 채색(彩色) 빛
무리(天空中的彩色光暈)



그림 보고
성어(成語) 맞히기

당신의 성어에 대한
이해력을 시험해 보세요!
이 그림들이 어떤 성어를
나타내는지 맞춰보세요.
사고력을 넓히고
훈련하세요!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